

# 현대오일뱅크, 제2의 도약 “척척”

## No.2 설비 가동으로 고도화율 30%로 상승 … 일본과 BTX 합작투자도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중공업의 품에 들어간 지 1년만에 고도화율 1위로 올라섰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이 편입한 후 대산공장의 고도화 설비 및 BTX 증설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대산공장의 No.2 고도화 설비는 2011년 1월 준공한 후 5월부터 풀가동해 하루 5만2000배럴의 중질유를 경질유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6만8000배럴을 처리하는 No.1 설비를 포함하면 하루 원유처리량 39만배럴 중 12만배럴을 고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도화율이 17%에서 30%로 상승해 국내 정유 1위로 올라섰다.

석유제품 수출도 1/4분기에 660만배럴에 그쳤으나 No.2 고도화 설비를 가동한 2/4분기에는 927만배럴로 40% 이상 급증했다. 수출액도 10억9950만달러로 전분기대비 62.3% 신장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고도화에 이어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P-X(Para-Xylene) 등을 생산하는 BTX 투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 Cosmo Oil과 합작으로 6000억원을 투자해 대산에 BTX 10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7월 착공했다.

이밖에도 울산 신항만의 대규모 저유소를 건설, 대산공장의 유동층 연소(FBC) 보일러 증설, 판교 기술지원센터 신설 등 종합에너지기업 발돋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채 신용등급도 현대중공업에 편입된 2010년 8월 A에서 A+로 상승한데 이어 2011년 3월에는 AA-로 다시 상향 조정됐다.

경영실적도 개선돼 2010년 1/4분기에는 19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011년 1/4분기에는 213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흑자로 전환했고 매출액도 3조1261억원에서 4조2155억원으로 급증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그룹이 1993년 정유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극동정유를 인수해 설립한 후 2001년 유동성 위기로 아부다비의 IPIC에게 경영권이 넘어갔으나 2010년 8월 현대중공업그룹이 IPIC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며 편입시켰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9/01>